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단독주택 열손실 시각화 자료로 제공	밴쿠버
산업·경제	3	성장섹터 중점 지원 등 새 직업훈련시스템 도입	빅토리아
사회·복지	5	사회적 약자에 음식 나눔 프로젝트 시행	파리
행재정·교육	7	‘비판·창의적 사고’를 정식 교과과목으로 설정	빅토리아
	9	에너지효율 A등급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런던
환경·안전	11	그린펀드 발행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 추진	도쿄
	13	도시농업 활성화 ‘파리퀵퇴르 2’ 시동	파리
뉴스인사이드	17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단독주택 열손실 시각화 자료로 제공

‘써멀 이미징’ 시행 ...난방비 절약, 인센티브 관련 정보도

캐나다 밴쿠버시 / 환경·안전

- 캐나다 밴쿠버시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열손실 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써멀 이미징’(Thermal Imaging) 프로그램을 시행
- 배경
 -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밴쿠버시는 유사한 형편의 다른 도시(매사추세츠주 일부 소도시, 영국 에든버러 등)에서 시행했던 이 프로그램을 도입
 - 최근 UBC 대학과 캘거리 대학에서 근린단위 개별 주택의 온도를 시각화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 방법들을 개발
- 개요
 -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열손실 현황을 알려주고, 건축물의 단열공사, 창문 개조, 밀폐 작업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
 -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자문 등의 인센티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 주요 내용
 - 주택의 열손실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집주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열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총체적 시스템
 - 시각 자료에서 건축물의 외관 온도가 높은 곳은 노란색, 낮은 곳은 어두운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열손실 부위는 밝은 노랑으로 표시
 - 건물 밖에서만 측정이 가능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손실 현황을 전달 가능
 - 시내 5개 지역 3천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써멀 이미징’을 제공
 - ‘BC Hydro and Fortis’와 같은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

- 기대 효과

- 이 프로그램으로 세대별 연간 수십만 원에 달하는 난방비의 절약 기대
- 2014년에 수립한 ‘현존 건물의 에너지 개선 전략’(Energy Retrofit Strategy for Existing Buildings)과 부합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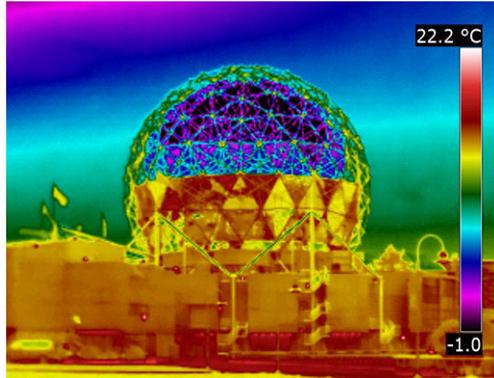


그림. Thermal Imaging의 예

<http://vancouver.ca/news-calendar/city-launches-thermal-imaging-pilot-program.aspx>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산업·경제

성장섹터 중점 지원 등 새 직업훈련시스템 도입

호주 빅토리아주 / 산업·경제

- 호주 빅토리아주는 기존 직업훈련시스템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자격증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술 우선(Skills First)'이라는 새로운 직업훈련시스템을 도입

- 배경
 - 주정부는 2014년 기준 500개의 공인 직업훈련기관과 44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했으나, 참여율·훈련의 질·취업 성과가 모두 악화
 - 5년 사이 19세 이하의 대학 미취학자들의 직업훈련 참여는 29% 감소
 - 직업훈련이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65%에서 57.7%로 감소
 - 직업훈련 이수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만족도도 89.4%에서 79.9%로 감소
 - 자격증 취득 실패로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가 연간 8천 건, 회수된 지원금은 연간 3천 250만 호주달러(325억 원)
 -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며 첨단기술 인력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
 - 주정부는 민간 훈련기관이 성장하면 공공 훈련기관과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훈련기관의 재정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

- 개요
 - 현행 직업훈련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제안들을 모은 '직업훈련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우선' 정책을 수립
 - '직업전문대학'(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을 위주로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려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의무를 강화
 - 직업전문대학은 전체 직업훈련의 70%를 담당하는 핵심적 공공 훈련기관
 - 직업훈련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강화
 - 산업계의 수요에 상응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질 높은 훈련을 제공

- 주요 내용

- 성장섹터에 중점 지원
 - 지원을 강화할 6개의 성장 섹터를 다음과 같이 선정
 - 의료기술 및 약학, 신에너지 기술, 음식 및 의료, 교통, 국방 및 건설 기술, 국제 교육, 전문서비스
- 직업전문대학(TAFE)의 복구
 - 비정부 기관들에 대한 지원 확대보다는 직업전문대학을 재활성화시켜 직업훈련의 중추역할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
 - 3억 2천만 호주달러(3천 2백억 원)의 'TAFE 복구 기금' 조성
- 훈련의 질 제고
 - 훈련기관의 요건을 개정하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
 - 학생들의 훈련 평가와 고용주들의 피드백을 주정부가 직접 수집
- 산업계와의 협력 사업 촉진
 - 산업계의 욕구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
 - 산업계와 훈련기관의 협력 사업에 4천만 호주달러(4백억 원)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장애인, 이민자, 대학 미취학자, 청년 및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연결' 프로그램에 2천만 호주달러(2백억 원)를 투입하고, 연간 3천 3백 명에게 혜택을 제공
- 견습제(apprenticeship) 활성화
 - 주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10%는 의무적으로 견습생으로 충당
 - 견습생들의 프로젝트 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세를 반으로 절감하는 등 견습생 지원에 930만 호주달러(93억 원) 사용

<http://www.premier.vic.gov.au/new-year-marks-fresh-start-for-victorias-training-system/>

<http://www.education.vic.gov.au/skillsfirst/Documents/Brochures/SkillsFirstBrochure.pdf>

http://www.education.vic.gov.au/Documents/about/department/VETIssuesPaper_July2015.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에 음식 나눔 프로젝트 시행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낭비되지 않은 음식을 사회적 약자에게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음식 나눔 프로젝트를 시행

- 배경
 - 1만 6천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선정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
 - 파리의 핵심 시정 중 하나인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행동’과 연계된 사업

- 개요
 - 파리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단체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적절한 단체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감독
 - 참여 사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연대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 주요 내용
 - 지원자격
 - 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단체일 것
 -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 특화된 단체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

 - 심사 기준
 - 팔리지 않은 음식의 수집과 재가치화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음식의 효율성을 늘리거나 팔리지 않을 음식의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고, 보조금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해야 함.
 - 음식이나 식료품이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배분되어야 함.

- 사용하는 장비들(냉장고, 차량, 창고 등)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함.
- 지원 가능 프로젝트 예시
 - 팔리지 않고 남은 음식이나 재료를 모아 재가공·재가치화하는 수단(식당이나 기술 등)을 갖추고 이를 배분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
 - 음식의 낭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제시
 - 여러 식당,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분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시
 - 남은 음식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과 같은 장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 창고를 제시
 - 창고는 파리시에서 장소 지원 가능
- 참여 사회단체의 의무와 지원 사항
 - 프로젝트 수행 1년 뒤 낭비를 줄인 음식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된 음식의 양을 정량화하여 보고서를 제출
 - 시민 참여 프로젝트 관련 발표회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소통
 - “파리, 시민 참여 프로젝트, 파리 시민과 함께”라는 로고를 사업 시 항상 활용해야 함.
 -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필수 보험 등은 모두 사회단체가 부담
 - 대신 파리는 최소 5천 유로(600만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주며 이 보조금은 해당 단체만을 위해 사용해야 함.

<http://www.paris.fr/actualites/paris-vous-aide-a-lutter-contre-le-gaspillage-alimentaire-candidatez-4465>

<https://api-site.paris.fr/images/88754>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행재정·교육

‘비판·창의적 사고’를 정식 교과과목으로 설정

호주 빅토리아주 / 행재정·교육

- 호주 빅토리아주는 세계 최초로 ‘비판·창의적 사고’(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를 정식 교과과목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 학년이 이수하도록 결정
- 배경 및 개요
 - 주정부는 ‘교육의 주’(Education State)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 투자를 중시
 - 현대사회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가르치는 방식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음.
 - ‘비판·창의적 사고’를 하나의 교과과목으로 정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측정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
 - 2016년에 시범사업으로 52개 학교에서 시행되었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세 가지 주요 영역
 - 1) 질문과 가능성(Questions and Possibilities)
 - 목표: 질문하는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발달시키는 다양한 과정과 기법을 연마
 - 특징: 학생들의 탐구정신에 기초한 교육의 기반
 - 내용
 - 상상력과 직관력을 개발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대상 간의 새로운 관계를 발굴
 - 2) 추론(Reasoning)
 - 목표: 주장(arguments)과 추론을 구성·분석·평가하는 방법을 탐구
 - 특징: 다른 교과과정의 기초가 되는 능력

- 내용
 - 데이터·증거·명제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법 교육
 -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어와 주장을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개발

3) 자아 성찰적 사고(Meta-Cognition)

- 목표: 사고와 학습과정을 이해·관리·성찰하는 전략의 활용 방법을 탐구
- 특징: 비판적 사고의 밑거름
- 내용
 - 자신의 사고과정을 파악·기술·이해·관리하는 방법을 교육
 - 기존의 명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접근법 교육

- 교육 평가

- ‘비판·창의적 사고’는 과목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언론과 일부 교육 학자들로부터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주정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호주교육연구협회에 의뢰하여 평가도구를 개발
- 평가는 비디오·이미지·소리·문서 등의 형식으로 문제나 상황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비판·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짧은 서술로 대답하는 방식
- 개별 학생의 학습능력을 영역별로 파악하는 평가로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2017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매년 이 평가를 받아야 함.

- 기타 사항

-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를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계
-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강의계획서를 준비

<http://www.premier.vic.gov.au/world-first-education-target-for-victorian-students/>

<http://victoriancurriculum.vcaa.vic.edu.au/critical-and-creative-thinking/introduction/rationale-and-aims>

<http://www.vcaa.vic.edu.au/Pages/foundation10/viccurriculum/cct/cctcmt.aspx>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에너지효율 A등급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영국 런던시 / 행정정·교육

- 영국 런던시는 2016년부터 시민들이 낡고 저효율의 보일러를 에너지효율 A등급의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가정당 400파운드(58만 원)의 캐시백 바우처를 지원
- 배경
 - 보일러 교체 지원금 정책은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0%로 낮추기 위해 추진한 정책 중 하나
 - 기대 효과
 - 연간 총 에너지 소비 금액을 약 220만 파운드(32억 원) 절감
 - 가정당 연간 난방비 340파운드(50만 원), 이산화탄소 배출량 1.5톤 절감
 - 가정당 연간 7,640kWh의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냉장고 1대를 약 1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 주요 내용
 - 지원자격
 - 런던 시민으로 집을 소유한 자
 - 런던에 집을 가진 개인 임대인 혹은 런던시에서 인증한 대리인
 -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최대 10대의 보일러에 보조금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1단계: 현재의 보일러 효율성과 종류를 체크
 - 가스, LPG, 기름, 석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전기보일러 제외)
 -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rate)이 70% 이하일 것
 - 집의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보일러일 것
 - 2단계: 온라인으로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 작성 내용은 연락처, 현재의 보일러 종류, 은행 계좌정보 등

- 3단계: 케시백 바우처를 수령
 - 심사가 통과되면 이메일로 보일러 교체 지원금 케시백 바우처를 수령
 - 바우처는 수령 후 12주까지 유효
- 4단계: 고효율의 새 보일러 설치
 - 새 보일러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A등급 이상의 가스 혹은 콘덴싱 기름보일러일 것
- 5단계: 케시백 청구
 - 지급된 바우처와 구매영수증을 우편으로 런던 시청에 발송
 - 우편 배송은 바우처 유효기간 이후 1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함.
 - 이후 시청에서 21일 이내로 신청인 계좌에 400파운드를 입금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improving-quality/london-boiler-cashback-scheme#acc-i-43360>

<http://www.standard.co.uk/lifestyle/london-life/london-boiler-cashback-scheme-what-is-it-and-am-i-eligible-a3171121.html>

<http://news.camden.gov.uk/london-boiler-cashback-schem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환경·안전

그린펀드 발행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 추진

일본 도쿄都 / 환경·안전

- 일본 도쿄都는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친환경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녹색 투자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2017년부터 200억 엔(2,020억 원)의 그린펀드 발행을 결정

- 배경
 - 도쿄도는 2016년에 수립한 ‘2020년을 향한 실행 계획’(2020年に向けた実行プラン)에서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설정
 - ① 도민의 안전·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한 ‘세이프 시티’
 - ②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다이버시티’
 - ③ 친환경도시, 국제 금융·경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스마트 시티’
 - 이 중 친환경도시와 관련한 정책은 주로 2016년 수립한 ‘도쿄도 환경기본계획’(東京都環境基本計画)을 따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30%로 낮추는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 중
 - 최근 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발행이 늘고, 기업의 녹색 투자 수요가 증가

- 주요 내용
 - 그린펀드의 목표와 의의
 -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목표로 도쿄도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도민과 기업으로부터 마련
 - 일본 지자체 최초의 그린펀드 발행으로 향후 그린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추구
 - 개인 투자자가 도쿄도의 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쿄도민의 주민 의식을 향상

-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수행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
- 기업의 친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을 도움.
- 그린펀드를 활용하여 도쿄도는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가능

- 그린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그린펀드의 적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제삼자 기관에 의한 인증을 취득
 - 그린펀드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여 발행 규모를 확대
 - 발행 금액을 증액하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도쿄도 채권을 발행하여, 더 다양한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

- 그린펀드를 활용할 예정인 친환경 사업
 - 2020 도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환경 대책
 - 도쿄도가 소유한 시설의 개축과 보수
 - 각종 시설과 도로의 조명을 LED로 교체
 - 도쿄도가 경영하는 친환경버스의 도입
 -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원 조성
 -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 물 재생 센터의 고도화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7/02/03/02.html>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7/02/03/documents/02_01.pdf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도시농업 활성화 ‘파리퀼퇴르 2’ 시동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市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Pariscu-iteur)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
- 배경
 - ‘파리퀼퇴르’(‘파리’와 ‘농업’의 합성어)는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수도 파리와 농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파리 행동 프로젝트
 - 2016년 시행했던 ‘파리퀼퇴르 1’은 33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 2017년 1월 27일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e Hidalgo)는 파리 유일의 농장인 ‘파리 농장’(la Ferme de Paris)에서 ‘파리퀼퇴르 2’를 제시
- 개요
 - 파리시는 2020년까지 시내에 100ha(1km²)의 녹지를 조성하고, 그중 1/3은 도시농업에 직접 할애할 예정
 - ‘파리 농장’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대학원 교과과정을 개설
 - 사유지와 공유지의 구분 없이 가능한 경우 녹지로 전환, 또는 기존의 녹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녹지를 형성하는 녹지화 사업 개시
- 파리퀼퇴르 1 요약
 - 도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파리를 더욱 녹색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었으며, 종 다양성을 증진
 - 파리의 도시 농업인과 농촌 농업인 사이의 연계를 강화
- 파리퀼퇴르 2 주요 내용
 - 유일한 시내 농장인 ‘파리 농장’ 외에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농장들을 건설
 - 2017년 동안 20여 개의 새로운 녹색 공원을 조성
 - 시민 참여 프로젝트에서 친환경 녹색 공원 조성에 많은 시민이 투표

- ‘파리를 녹색화하자’(Vegetalisons Paris) 프로젝트의 온라인 진행
 - 관심이 있는 개인·사회단체·기업 등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제공
- ‘파리 농장’과 협력하여 브뢰이유 대학(Ecole du Breuil)에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과정을 신설
-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사이의 새로운 연계 구축
 - 파리의 도시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3만 톤의 퇴비 제공
 - 도시 농업인과 농촌 농업인 사이의 연계를 주선
 - 소규모 농업인과 대규모 농업인 사이의 연계를 확립
- 지속가능한 농산물 유통망을 개발

- 기타 사항

- 음식물 쓰레기를 농업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인 대표, 농산물 사업 대표, 유통업자, 소비자, 기업 간의 연계를 파리시가 구축
- ‘2016~2020 퇴비 플랜’ 가동
 - 퇴비를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하고, 남은 퇴비를 버리지 않고 모을 방안을 마련
 - 개인적으로는 지렁이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뱅센느 숲(le Bois de Vincennes)에서 보리와 홉을 길러 파리 맥주의 양조와 생산에 기여
- 2017년 중으로 도시농업 콘테스트를 개최해 도시 농업인들 간의 경쟁 촉진

<http://www.paris.fr/actualites/paris-accentue-son-soutien-aux-agriculteurs-et-a-une-alimentation-durable-4473>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저소득층·노숙자에 공급할 저렴한주택 440채 건설 2017.01.13
- 뉴욕시는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하여 미이용 사유지에 100% 저렴한주택 약 440채를 건설하기로 함. 또한 지역 농장, 커뮤니티 센터, 기술 지원시설 등도 함께 건설하기로 함.
※ 저렴한주택 건설지역: 1921 Atlantic Avenue in Bedford-Stuyvesant, 1510-1524 Broadway in Bedford-Stuyvesant, 461 Alabama Avenue in East New York, 1490 Southern Boulevard Crotona Park East, 359 East 157 th Street in Melrose, 263-267 West 126 th Street in Harlem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19-17/mayor-bill-de-blasio-m-wbe-firms-win-bids-build-hundreds-affordable-homes-six#/0>
- 1조 5천억 원 투자해 950채 공공주택 보수 2017.01.24
-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보수를 시행하기로 함. 13억 달러(1조 5천억 원)를 투자해, 공공주택 950채의 지붕과 난간 등을 보수하고 17만 명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38-17/mayor-de-blasio-investing-1-billion-replace-roofs-more-700-nycha-buildings-combatting>
- 도로안전·교통개선에 5년간 4,600억 원 지원 2017.01.25
- 뉴욕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도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5년간 4억 달러(4,6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도로표시, 조명, 설계 등을 개선하고 교차로 내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42-17/vision-zero-mayor-de-blasio-proposed-budget-invests-more-crossing-guards-street-safety#/0>

런던

- 친환경버스 배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84% 줄인다 2017.01.06
- 런던시는 2020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을 84% 줄이기 위하여 10개의 초저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친환경버스를 배차하기로 함. 런던시 내 초저배출지역은 기존의 Putney High Street와 Brixton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역이 지정됨.

※ 12개 초저배출지역: Putney High Street, Brixton to Streatham, A12 Eastern Avenue, Lewisham to Catford, Stratford, Haringey, Camberwell to New Cross, Wandsworth to St John's Hill, Edgware Road, Edmonton to Seven Sisters, Uxbridge Road to Shepherds Bush, Chiswick High Road to Kensington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announces-10-new-low-emission-bus-zones>

○ **‘대기환경 개선’ 6가지 혁신계획 발표** 2017.01.20

- 런던시는 대기 오염 해결 기술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6가지 혁신계획을 발표함.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초저배출차량, 전기충전시설 등에 250만 파운드(35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 6개 혁신 계획 지역: Hammersmith & Fulham, Heathrow, City Fringe (Hackney, Islington and Tower Hamlets), Harrow, Haringey, Croydon & Sutton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new-funding-for-london-neighbourhoods>

○ **맞벌이 가정 위한 보육비 무이자 대출 추진** 2017.01.25

- 런던시는 시내 보육시설의 비용이 증가하고 도시 내 가정이 시외 가정보다 보육비를 2,200파운드(310만 원) 더 지출함에 따라 보육비 무이자 대출제도 마련을 제안함. 보육비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king-childcare-more-accessible>

상 하 이

○ **양로원·탁아소 건설 등 올해 복지사업 발표** 2017.01.05

- 상하이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017년 복지사업을 발표함.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을 위한 양로원 추가 건설, 미취학 아동을 위한 탁아소 건설, 식료품점 설치 및 배수장치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114.html>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1인당 연 330만 원 보조금 지급** 2017.01.06

- 상하이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총 3년 동안 1인당 연간 19,800위안(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6개월 동안 구직을 못 한 40세 이상 여성과 45세 이상 남성, 장애인, 미취업 가정, 마약중독자 등을 기업이 고용하도록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132.html>

- 평센구에 생태정원·농경지 조성 2017.01.25
 - 상하이시는 최초로 평센구(奉贤区)에 생태정원과 농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 구내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지구 조성을 도모함.
-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292.html>

싱가포르

- 전 지역 가로등, LED등으로 교체 2017.01.04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은 2022년까지 싱가포르 전 지역의 가로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기로 함. 교체되는 LED가로등은 에너지효율이 25% 높고, 원격제어와 기후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함.
-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smarter-more-energy-efficient-street-lamps-to-be-installed-by-2022>
- 고용정년 67세로 늘리고 60세 이상 임금 삭감 폐지 2017.01.10
 - 싱가포르는 고령자의 노동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고용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60세 이상 고용인의 임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이로써 65세 이상 노동인력 약 12만 명의 노동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re-employment-age-to-be-raised-to-67>
- 16,700개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2017.01.26
 - 싱가포르 기업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16,700개의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약 21,400개의 일자리와 78억 싱가포르달러(6조 3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spring-singapore-funds-projects-that-promise-21400-jobs>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